

## 디지털화와 합리적 경제 행동

경제의 디지털화에 의해 정보 소통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서 그 동안 경제 활동에 존재해 왔던 불합리한 경제 행태도 변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역선택(逆選擇) 문제의 해소이다. 역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경제 활동 속에서 심심찮게 발견되지만,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예는 보험이다.

보험회사가 고객을 모집할 때 사고 확률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 하지 않으려는 반면,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거래 상대방과 거래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바람직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상황을 흔히 '역선택'이라고 표현한다. 역선택 문제는 중고차 시장, 자금 시장, 인력 시장 등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 혹은 정보화의 흐름과 더불어 이러한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가 훨씬 많은 대중에게 훨씬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확산되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데 3일이 걸린다면,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데는 불과 3초면 충분하다. 또한 필요한 정보를 발로 뛰며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디지털화에 의해 한쪽에 과도하게 몰려 있던 정보나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던 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이전되며 공유되고 있다. 요컨대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 즉 정보 보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일반 거래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 '가격 비교'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 십 혹은 수백 개의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떠오른다. 함부로 가격을 속이거나 고객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가 부족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거래하는 역선택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험회사의 예를 들면, 사고 위험이 높거나 고의적으로 역선택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는 전산망을 통해 보험회사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되면 제품의 설계, 기능, 가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에 정보의 불균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왜곡된 거래 관행도 사라지게 된다.

역선택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는 인터넷 경매의 급성장이다. 경매란, 말 그대로 하나의 제품에 대해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행위이다. 그런데 기존의 경매시장과는 달리 인터넷 경매에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가 많을수록 그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그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를테면 인터넷 경매 과정은 결국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시키고 공유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디지털화의 진전 과정에서 역선택의 여지가 줄어들게 되면 불가피하게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의 경제 행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정보의 독점을 이용하여 제품마다 자의적인 가격을 책정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마케팅 관점에서는 자의적 가격정책이나 과장 광고보다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정확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만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한 전력은 순식간에 다른 업체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이후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는 개인의 정보나 지식재산권 등 고급 정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역선택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의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했던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이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디지털 기반과 활용 역량을 배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이다.